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Conference Book II



Conference Book II

Global Climate Issues and the Role of Journalism
지구촌 기후문제와 언론의 역할

Hosted by



Supported by





2021 세계기자대회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Conference Book II

Korean

Hosted by



Supported by





2021 세계기자대회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Contents

개요	103
프로그램	111
컨퍼런스 II	115
참가자 리스트	175



2021 세계기자대회

개요



행사명	2021 세계기자대회
일시	2021년 4월 18일(일) - 20일(화)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주최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후원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hungna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퍼런스 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언론의 역할 ▷ 콘퍼런스 II 지구촌 기후문제와 언론의 역할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언론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혼란 -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종식 희망 높아지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대비 - 전염병의 완전 종식을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 모색 -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의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도 함께 논의 • 지구촌 기후 문제와 언론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 - 각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들여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 논의 -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정책을 소개, 환경 보존 노력을 전파

※ 세계기자대회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으로 시행됩니다

개회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평화와 희망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 되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기자대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각국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되어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자 단체로 전국 195개 언론사 1만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5대 강령 중 하나인 '국제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다'는 강령에 따라 1966년 국제기자연맹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기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매년 전 세계 언론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세계기자대회를 개최했고 어느덧 올해로 9회째에 이르렀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2019년까지 7년간 전세계 언론인들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로 초청해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미래를 논하고 상호 친목의 장을 확장시키며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언론인들의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분단 현실을 보여드리지 못해

개회사

아쉽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성별, 피부색, 이념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진실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자대회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첫날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사회, 환경, 생명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구촌 기후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비록 온라인상으로나마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참가자들 모두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원 드리며 올해의 컨퍼런스 내용을 동료 기자들과 공유하고 자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지구촌의 당면 과제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여러분 모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소개

역사를 기록하는 한 줄의 글,
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하는 사진과 영상,
소명과 열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들,
그 기자들 뒤엔 언제나 한국기자협회가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8월 17일 일선기자들의 자발적인 공감대 속에 탄생해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언론자유 수호 투쟁,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 국제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라는 5대 강령을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5대 강령은 한국기자협회의 존립 이유이자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현재 전국 195개 회원사, 1만 1천여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단체입니다. 협회는 매주 5만부의 '기자협회보'를 발행해 언론계 이슈를 생산하고 각종 주요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 개최, 기자들의 장단기 연수, 국내 대학원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언론인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선 기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품격 높은 기사 생산을 유도해 저널리즘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정보(일명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자들의 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언론윤리강령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언론단체와도 공조해 언론의 신뢰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기자들을 파견해 재능기부 저널리스트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고,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전국학생논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회원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해마다 전국기자축구대회와 기자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세계 언론인들과 함께하는 유대강화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1966년 IFJ(국제기자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993년 중국기자협회, 1994년 베트남

한국기자협회 소개

기자협회, 2013년 인도네시아기자협회, 2014년 몽골기자협회, 2015년 불가리아 기자협회, 2018년 러시아 기자협회와 상호 기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자협회와도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기자들과의 정기교류는 국가 간 외교를 뛰어넘어 민간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기자협회는 더 많은 외국 언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01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기자연맹(IFJ) 정기총회와 2003년 동아시아기자 포럼, 2005년 아시아기자포럼, 2007년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12년에는 한국·중국·베트남 3국 기자들이 함께하는 콘퍼런스를 연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RSF) 등 국제언론단체들과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언론자유와 세계 기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세계기자대회를 통해 각국의 기자들과 연대를 강화함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치료와 종식 이후의 사회를 전망하고 인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또다른 지구촌의 문제인 기후환경의 현실과 대응방안을 함께 토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제47대 김동훈(KIM DONG HOON) 회장과 집행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매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널리즘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 그리고 민족의대단 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는 앞으로도 국제 언론인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와 우정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시대를 앞서가는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콘퍼런스 표

지구촌 기후문제와 언론의 역할

- 약력
- 발표자료

2021년 4월 20일(화)

컨퍼런스 II

주 제	지구촌 기후문제와 언론의 역할	
좌 장	정민호 코리아타임스/ 한국기자협회, 디지털 콘텐츠 팀장/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한국	115
발제자	파툴바리 아크가르 The Kabul Times, 부편집장, 아프가니스탄	116
	하비브 토우미 Bahrain News Agency, 미디어 부문 고문, 바레인	119
	아흐메드 자밀 Asian Television, 뉴스콘텐츠부문 고문, 방글라데시	121
	모하메드 토피크 알리 The Daily Star, 전 기자, 방글라데시	123
	양헬 페르난도 갈린도 오르테가 파라레타지/영화논쟁블로그, 프리랜스 기자, 콜롬비아	126
	카투나 차피카제 조지아 공과 대학교, 교수, 조지아	129



2021 세계기자대회

2021년 4월 20일(화)

컨퍼런스 II		
발제자	하산 후메이다 헬름홀츠해양연구소/키일대, 박사, 독일	131
	말릭 솔레마나 Ghanaian Times, 선임기자, 가나	134
	엠비카 굴라티 독립 기자, 인도	136
	닐리마 매서 Spotfilms, 책임 프로듀서, 인도	138
	장다울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한국	141
	윤지로 세계일보, 환경부 기자, 한국	144
	쿠바니치벡 타발디예프 Kabar News Agency, 총편집국장, 키르기스스탄	148
	게나 할릭 Laha Magazine, 리포터, 레바논	151

2021년 4월 20일(화)

컨퍼런스 II		
발제자	아룬 란지트 Foreign Affairs News,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네팔	153
	나시르 아이자즈 Sindh Courier, 편집장, 파키스탄	155
	레오니디오 페레이라 Diário de Notícias, 부편집장, 포르투갈	157
	티무르 샤피르 러시아기자연맹, 사무국장 겸 국제부 부장, 러시아	160
	아이반 림 싱가포르 환경기자클럽, 회장, 싱가포르	162
	아울 카다르 이스마일 소말리아기자연맹, 저널리즘 분석 및 비평가, 소말리아	165
	세바스찬 아우야넷 NowThis News, 프로듀서 겸 사회부 기자, 우루과이	167
	티 란 추 Dantri Online Newspaper, 기자, 베트남	170

※ 발표자료는 국가명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좌장



정민호

코리아타임스/ 한국기자협회
디지털 콘텐츠 팀장/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한국

◎ 이력

- 코리아타임스 디지털 콘텐츠 팀장
-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장



2021 세계기자대회



발제자



파툴바리 아크가르

The Kabul Times
부편집장
아프가니스탄

◎ 이력

- 카불타임스 부편집장
- 와흐트뉴스에이전시, 아프가니스탄타임, 신화사 뉴스에디터 역임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건강, 환경, 이주 및 이민, 안보, 사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크다. 기후변화는 지질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극심한 날씨 변화, 오존 파괴, 산불의 위험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식량 생산 시스템 왜곡, 그리고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과 같은 대규모 환경 위험의 출현을 불러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9년 전인 2002년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5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그 수는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연간 2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는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식량공급, 경제성장, 사회변화, 그리고 식수와 같은 공공재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역 인구를 고려할 때 해롭기도 하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의 기후변화는 중단기적으로 볼 때 식량 생산과 지역경제 활동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글라데시에서의 기후변화는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말라리아, 소아 설사, 폐렴 및 Dengue열과 같은 민감한 질병의 증가를 야기시켜 왔다.

파툴바리 아크가르

이러한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인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지금 당장의 영향과 미래에 미칠 영향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훨씬 더 취약한 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역사회 대부분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실, 언론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막아 내기 위해 대중들에게 어떻게 경고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에 직면한 사회에서 언론의 주요 역할은 한편으론 계몽적인 것이고, 또 한편으론 과학자들과 시민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세계의 언론인, 연구자 및 교육자들은 모범 사례, 혁신 및 도전 과제에 대해 협동하고 교류하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기후변화의 과학과 윤리에 대해 먼저 이해한 후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정책 형성 과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는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적이고 세계적인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론이 평화와 안보(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및 기타 다루기 힘든 국가 등)와 같은 사건을 취재할 때, 어떻게 하면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당국과 공유하고 의논할 경우가 많다. 언론은 기후변화와 그 영향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극복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는 언론인이 평화와 안전 그리고 기후변화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다뤄야 할 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이 어느 나라가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뤘는지, 그리고 국가 대 국가가 서로 자국 발전을 위해 어떻게 손을 맞잡았는지에 대해 종종 보도하고 생중계로 방송한다면, 이는 임무를 매우 잘 수행했다 할 수 있을 거다. 물론 경제발전 이면을 밝혀내는 것도 언론인의 필수적인 임무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러한 발전은 대부분 심각한 기온상승을 일으키는 수많은 기업과 공장 설립 등 무분별한 개발에 기인한 결과이고 이런 문제점이 극심한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배후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은 종종 정당한 출처를 통해서 복잡한 기후과학을 설명해야 하고 청중들이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후

파퓰러리 아크가르

이야기가 다른 이슈와 어떻게 경쟁하는지, 대규모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이 어떻게 뉴스가 되는지, 그리고 언론이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중을 끌어들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발제자



하비브 투우미

Bahrain News Agency
미디어 부문 고문
바레인

◎ 이력

- 바레인 국영 통신사 편집위원
- 아시아엔 영문판 편집장

[언론과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책임]

기후변화 영향으로 수백만이 큰 위험에 처했다. 따라서 언론이 이를 알리고, 위험을 경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한가하게 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 문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확산을 막고,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급 사안이다.

기후변화는 전세계를 갑작스럽게 멈추고, 목숨을 앗아가고,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희망을 짓밟은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취급해야 하는 문제다.

유럽과 그 외의 지역, 부국과 빈국, 권력자와 보통사람 간의 백신전쟁은 국가 및 국민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와 관련 언론은 독자들이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하비브 토우미

현재 국가별로 기후변화 영향을 동일하게 겪고 있지는 않다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상이하거나 심지어 대조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언론보도 우선순위나 보도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재원이 누구냐, 다시 말해 공무원이나 조직이나 과학자냐 등에 따라 주장이 달라, 경험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략이 없는 언론인은 기후변화 취재나 보도 때 애를 먹는다. 주장을 반박 혹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과 허위정보를 구분하거나, 권장사항을 제시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학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 과학자,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언론과 언론인은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과학자, 경제학자, 환경운동가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조사해야 한다. 언론인은 과학지식을 갖추므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임무는 엄청나고 복잡한 것이어서, 최소한 초기에는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광범위한 경제 및 정치 요소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쌓아 수많은 이슈들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언론인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 출신 언론인들이 처한 상황은 복잡하다. 개발도상국 언론은 관련문제를 부각시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보도하고 잠재된 문제들을 부각시키려면 탄탄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이해 관계자들은 준비된 전문가 워크숍과 적절한 툴을 언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기사를 쓰도록 도와야 한다. 겉만 번지르하고 추상적이고 거창하기만 자료는 되레 방해만 될 뿐이다.

언론간 국내외 공조를 통해 정보수집이 용이하도록 언론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발제자



아흐메드 자밀

Asian Television
뉴스콘텐츠부문 고문
방글라데시

◎ 이력

- 영문학 학사, 언어학 석사
- NSU(North South University) 공공행정 전문가

A. 배경

언론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정책 의제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언론은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B. 제안

- 글로벌 기후 문제를 전문성 있게 다루기 위한 저널리스트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체계 구축
- 지구온난화 이슈에 관한 언론인 네트워크 구축
-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TV 토크쇼와 정책 대담
-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
- 기후 문제 탐사보도 기획
- '기후변화 저널리즘'의 정의 및 영역 확정
- 기후변화 관련 언론인 저술 지원
- 기후변화 전문용어 및 보도사례 가이드북 발행

■ 아흐메드 자밀

C. 예상되는 효과

- a) 기후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과 보도양태를 확보할 수 있다.
- b) 기후변화 정책 관련 보고서와 전문성 높은 기사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
- c) 시민사회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후변화 대책 정부 예산 확보 및 민간의 기후변화 관련 투자 및 대응 역량을 제고시킨다.

D. 향후 과제

- a) 기후문제와 관련한 저널리스트와 정부 및 민간 차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b) 기후변화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이해력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로컬 및 글로벌 차원의 컨퍼런스 등 회의체 상설화
- c) 저널리스트와 기후 전문가를 위한 교환 프로그램 수립

발제자



모하메드 토피크 알리

The Daily Star
전 기자
방글라데시

◎ 이력

- The Daily Star 기자 역임
- 지속가능개발, 환경 보전, 수자원 보존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
- 인도 첸나이 Asian College of Journalism 석사
- 독일 함부르크 “미디어의 자유, 언론 윤리와 전문화 과정” 수료
- 다카대학교 영문학 학사 및 석사

오늘날 기후변화는 현대인의 삶과 생계, 그리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인류 최대 위협 중 하나다. 전문직으로서 기자는 활동지역을 막론하고 기후변화의 지역적·세계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밀착 취재하고 후속 보도할 의무가 있다. 범죄, 정치경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사를 작성, 보도, 전달, 전파, 교육하고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독자와 시청자들이 기후변화를 일상에서 고민하게 해야 한다. 기자가 아니면 누가 이런 역할을 하겠나? 예를 들어 생명, 생계, 생태계의 유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하천 보호는 환경저널리스트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알려온 주제다.

이와 함께 개발 의제 설정, 탄소 저감을 위한 기후의정서 채택, 지구온난화 완화 등은 기후변화 지표 이면의 복잡한 과학 및 수학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기자는 신뢰성, 진정성, 역량 등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후 혁신 사례를 보도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과 완화에 관한 국제협약과 의정서에 대해 다룰 의무가 있다.

■ 모하메드 토피크 알리

바로 이러한 특성이 전문 저널리즘과 비전문 저널리즘(e.g. 검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시민저널리즘 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기자는 행동 촉구와 교육을 통해 기후 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지녔으며, 기후변화 완화라는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미디어 대행사인 인터뉴스(Internews)의 EJN(Earth Journalism Network)에서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아담 헛트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경뉴스는 지루하거나 복잡한 과학적 내용을 열거하거나 우울하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로만 가득할 때가 있다. 따라서 기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속에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녹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그는 또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리프레이밍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국가 기후변화 사무국(NCCS)에서 기업홍보팀을 이끄는 유엔 사이 관 디렉터는 “지역사회와 민관 차원에서 개발하는 솔루션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기후와 환경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환경저널리즘은 경제보도만큼이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기후 문제는 그 속성상 과학, 경제, 정치의 영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환경과 기후변화를 취재하는 기자는 이 문제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자는 취재 시 초국가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소수 강대국이 “기후변화는 영터리”라고 치부하는 상황에서 “지구는 우리가 사는 곳이니 필요시 모든 자원을 남김없이 다 사용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일부 확산되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따라서 기자가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과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과학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 기자가 개입해야 한다. 만약 기후변화가 당장 야기할 영향에 대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재빨리 깨닫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 모하메드 토피크 알리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허위이거나 부족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모든 유형의 위기관리에 정보 접근성은 필수적이다. 검증된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사람들과 환경 의식이 있는 정치인 모두 필요하지만, 기자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는 권력이다.

전문기자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국민, 지역 사회와 정부를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절실한 신뢰성, 정확성, 객관성을 제공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는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자원의 채취, 소비와 훼손에 맞서 환경과 천연 자원의 보존을 주요 축으로 삼는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전문 저널리즘은 집중 호우, 해수면 상승, 사이클론, 홍수 등으로 인한 강제 이주, 전통적 농업 방식의 붕괴 등 이상 기후와 기후변화가 야기한 자연재해를 보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강대국을 필두로 국가 리더십과 글로벌 리더십을 촉구해 지구 생존을 담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자는 오존층 고갈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극지방의 빙하 면적 감소,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주요 문제를 보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책임 있는 소비의 실천을 도울 수 있다.

발제자



앙헬 페르난도 갈린도 오르테가

파마레터지/영화논쟁블로그
프리랜스 기자
콜롬비아

◎ 이력

- <El Tiempo> 프리랜서 기자 역임
- <Portafolio> 기자 역임
- 영국 웹사이트 <The pharmaletter> 기고자

[지구온난화 보도 방식의 객관성]

지구온난화 보도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국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보안 슬랫 같은 기업이나 네이처 워크 등의 회사를 차치하고라도 정작 환경보다는 환경을 이용한 정치에 관심 쏟는 '유사 환경운동가'에 더 관심을 갖는 일부 대형언론사를 먼저 지적하려 한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급진적인 과학자에 더 귀기울이는 언론사 행태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대형언론사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아포칼립스: 환경 경각주의가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Apocalypse Never: Why environmental Alarmism Hurts Us at All)의 저자인 환경전문가 마이클 셀렌버거나 <화석 연료와 관련된 윤리적 사례>(The Moral cases of the fossil fuels) 저자 알렉스 엠슈타인, 나아가 코페네그흐의센터 회장인 보르그 롬보르그(Bjorg Lomborg), 혹은 환경운동가이자 그린피스운동 창립자 중 1인인 패트릭 무어의 의견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도하고 있다.

앙헬 페르난도 갈린도 오르테가

저널리즘은 정확한 출처를 갖고 독자나 시청자에게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환경운동가는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사실과 구분돼야 하는 편견과 모순이 종종 드러난다. 더욱이 수많은 이견과 관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을 검증없이 보도하는 언론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언론이 다뤄야 할 중요 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올 것처럼 절망적인 사태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실제 보르그 롬보르그 같은 이들은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솔루션이 지구온난화를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며,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따라서 그들은 인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말라리아, 에이즈, 영양실조 등의 문제에도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와 동일한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 언론사나 급진주의 환경운동가 못지 않게 관심은 못받지만 환경보호에 애쓰는 소규모 환경단체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 정치성향을 지닌 그린피스처럼 환경보호운동을 벌이는 일부 운동가도 있지만, 실질적인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소규모 단체 활동에 시선을 주어야 한다.

가령 도로부족으로 화물이나 승객을 수송할 수단이 항공기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의 실정도 모른 채, 화석연료 소비를 막아야 한다며 항공기 사용을 금지하라는 환경운동가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언론사는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 기존 관점을 타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민간기업-공동체간 협력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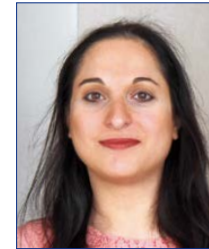
인류 이전부터 기후변화는 계속돼 왔다. 환경운동가 주장처럼 인류의 기술발전이 환경을 훼손한 것도 사실이지만, 기술발전은 인류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사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두 세기에 걸친 기술과 과학의 진보 덕분에 인류는 자연과 그 기능, 나아가서는 자연과 생태계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은

■ 양헬 페르난도 갈린도 오르테가

전기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으며 소규모 공동체가 전기차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도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평 불만만 토로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이 인류와 자연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황당한 방법이나 제안을 내놓는 급진적 성향의 환경운동가들이 더 존중받는 것은 아이러니이면서 부정직한 일이다.

대형언론사가 한 측면만 보여주기 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이용하는 반면, 대안 언론사 및 심지어 국어교과서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제자



카투나 차피카제

조지아 공과 대학교
교수
조지아

◎ 이력

-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주립대(SDSU) 조지아 캠퍼스(SDSU-G) 정치학 교수

[지구촌 기후문제: 조지아의 사례]

조지아 환경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2014-2017)는 최근 몇 년간 GHG 배출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015년 조지아의 총 GHG 배출량은 약 17,589,000톤(이산화탄소 환산)이며 이 중 62%는 에너지 부문, 비에너지 관련 GHG 배출이 38%, 농업 부문이 18%, 산업 부문 12%, 폐기물 부문 8%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GHG 배출량 증가율은 6.3%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조지아는 1961-2010년 사이에 연평균 기온이 0.4-0.5도 상승했다. 온도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데도플리스츠키카로(조지아 동부)(0.7도)와 포티(조지아 서부)(0.6도)였다. 1961-2010년 사이에 조지아 서부의 연간 강수량은 5% 증가한 반면 조지아 동부는 0.1% 감소했다. 스바네티(조지아 북서부)와 아자리아 고원(조지아 남서부)의 저지대가 14%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리키산맥(조지아 중부)의 중심부가 8%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메스케티(조지아 남서부 산악지역)이 6% 감소했다.

조지아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환경문제를 설명하고 국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동질 요인의

카투나 차피카제

영향을 가시화하기 위해 상당한 논란을 야기한 후도니 수력발전소(Khudoni HPP)프로젝트 사례를 제시한다.

후도니 수력발전소

* 주요 사항

- 1) 규모 및 비용 : 200.5미터 높이의 아치형 댐, 지하 발전소 및 528헥타르의 저수지로 계획된 스바네티의 후도니 HPP는 조지아에서 두번째로 큰 수력발전소로 건설될 예정이다. 건설 비용은 10억6천만 유로(GEL 27.5억)로 추정된다.
- 2) 타당성 : 이 프로젝트에 따라 2000명이 재정착해야 하고, 문화유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수 증가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도니의 기술적, 재정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지만 지역 주민을 비롯한 엔지오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3) 개발업자 및 자금 조달 : 프로젝트 업체의 실질 소유자와 프로젝트 재무 담당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 (세계은행은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그루지야주는 프로젝트 업체에 대한 지분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 비용의 24%를 제공했다.

* 주요 문제

- 1) 약 2000명의 주민이 댐 건설로 인해 이주해야 한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말미암아 후도니댐 건설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이 촉발되었다.
- 2) 정부는 일정 수준의 협박과 홍보 캠페인으로 대응하고 있다.
- 3) 조지아 국민을 위한 프로젝트 혜택은 과세 인하 정도로 제한적이며 프로젝트 참여업체는 해외 등록 기업이다.
- 4) 프로젝트는 물 흐름, 지역문화, 지질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발제자



하산 후메이다

헬름홀츠해양연구소/키일대
박사
독일

◎ 이력

- 수단 아보루크바에서 출생, 독일시민권 취득
- 예나대 및 기센대 석박사
- 박사논문 "당뇨병 환자의 말라리아 치료-중부 수단에서의 현장 연구"
- 키일대학교와 플렌스부르크대학교의 수석강사 겸 GEOMAR 과학자

[언론은 기후변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지구의 냉각화 또는 온난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지구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기후변화는 그야말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은 주거, 이동, 소비 행동 같은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형태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지구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자연이 거대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온실가스는 지구에 점점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물자원을 찾기 위해 지구를 파괴하면서 다양한 유기체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산불로 수십억 생명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

하산 후메이다

사막화와 물부족 현상으로 많은 지역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해충과 전염병이 발생하고 녹지대를 파괴해 이는 극심한 기아와 빈곤으로 이어진다. 특히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기후변화에 크게 타격을 받는다. 주로 농업, 축산, 어업 분야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위협 받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이상현상을 야기한다. 해안지역에선 허리케인, 홍수 및 토양 염분화가 발생한다. 또한 기온상승은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일부 섬 국가가 영원히 사라질 우려도 예상된다. 농업 부문에서는 일부 농산품의 재배 방식이 변경되거나 일부 품종의 멸종으로 생물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다.

2050년까지 세계인구 증가로 9억명 이상이 먹고 마시고 이동할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 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 위기는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다양한 병원체 중 미생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인구 증가, 글로벌 이동량 증가, 사람과 동물의 밀폐된 주거공간은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전염병 퇴치를 위한 획기적인 업적을 낸 로베르토 코흐(결핵 백신)와 루이스 파스퇴르(광견병 백신)의 첫 백신 접종 후 약 200년이 지났다. 알렉산더 플레밍(페니실린)의 항생제가 개발된 지 100년이 지났다.

또 다른 문제는 치료법이 없는 질병을 초래하는 다중 약물 내성의 출현이다. 우리는 아직 미생물 병원체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며, 병원체가 미생물에서 바이러스로 변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이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간과해선 안된다.

언론인들은 기후변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지녔다. 기후변화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 범세계적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를 특정 시간대에 독점적으로 배정하길 바란다. 세계인이 기후변화 관련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절반의 성공은 아닐까.

잠정적으로 '글로벌 모멘트(Global Moment)'이라고 불리는 이 이벤트는 전 세계가 하나가

하산 후메이다

되어야만 기후변화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매일 기후변화에 대한 보도를 시청각 또는 문서 형태로 제공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결국 언론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기후에 민감하게 행동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발제자



말릭 술레마나

Ghanaian Times
선임기자
가나

◎ 이력

-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학사학위를 받은 후 지난 10년간 <뉴타임즈> <가나타임즈>의 기자로 활약하고 있음
- 범죄사건, 법정 취재, 정치, 기후변화, 경제, 국제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

과거엔 전염병과 전쟁이 인간을 위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감염병이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현재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은 바로 기후변화다.

우리는 수 세기 동안 기후변화를 경험해 왔다. 세계 정부는 기후변화가 인간 존재에 미치는 건강 관련 위험과 경제적 위험을 알고 있다. 기후변화가 목전에 닥쳐 인간 존재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에 수반하는 영향을 억제하는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기온상승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언쟁을 하고 있다.

그래도 희소식은 과학연구와 기술 발전이 저널리즘의 역할 덕분에 이러한 전염병과의 싸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언론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한 이유다. 지역사회, 인간, 야생동물, 초목, 수생생물을 안전한 멸종으로부터 구하고 보존하려면, 세계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수위를 한 단계 높여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말릭 술레마나

기후변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언론인은 교육 플랫폼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음용수 공급, 엄격한 광업 규제가 없는 국가의 불법 광업 금지, 나무 심기 등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나에서는 광부의 불법 활동으로 수역이 지속해서 오염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사회의 주민과 동물을 위한 식수 공급원인 우물과 샘은 매일 메말라 가고 있으며, 삼림 벌채와 도시화가 식량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안선에 위치한 지역사회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주해야만 하고, 곧 망가질 것 같은 차량이 뿜어내는 일산화탄소는 불규칙한 강우량과 질병을 야기하고 있다.

최악인 것은 가나 공공의료서비스(Ghana Health Service, GHS)에 따르면 매년 가나인 3000명이 공기 중 독성 화학 물질을 흡입함으로써 공기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사망한다. 이 수치는 말라리아, 결핵, 콜레라,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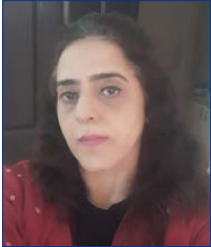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가 전 세계 실업률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정부가 기후변화 원인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필자는 가나에서 장작 대신 가스를 사용하기 등의 청정요리 방법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강조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언론인이자 기후변화운동가로서 지금까지 내가 할 활동은 그레이트아크라(Greater Accra) 지역의 5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인류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녹색경제와 무공해운동을 강화하는데 세계 언론인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자,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다.

발제자



엠비카 굴라티

독립기자
인도

◎ 이력

- Outlook Group, Media Transasia, Dalal Street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
- 블로그(atravellerswishlist.com) 운영자

인도 및 환경보고

인도의 환경 NGO 과학환경센터는 출간물 <Down to Earth>를 통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Outlook Group은 디지털 플랫폼 'Planet Outlook'을 출시했다. <The Times of India> 등 주요 언론들은 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거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주요 이슈로 다룬다. 2017년 11-12월 델리 오염 사건이나 2021년 조류독감 등이 뉴스의 중심이 된 사례가 그것이다. 노후차량에 대한 환경세 부과나 최근 유탄란찰의 차몰리 빙하 붕괴 사건 등도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지역언론의 경우 환경색션을 두고 채굴, 밀렵, 불법 벌채 등의 지역 생태계 문제를 기사화한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는 트위터 역시 일반의 주목을 받는다. 북동부 아삼 주 출신 유명가수 Papon은 석탄 채굴 소식이 전해지자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곳을 국립보호구역으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했다. 팬들은 리트윗으로 응원했다.

개인의 특별한 경험

2019년 인도 내 주요기업의 CSR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인도 내륙을 여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The India Drive」라는 제목의 커피테이블북이었고 Outlook Group에서 주최했다. 필자는

엠비카 굴라티

기업들이 서식지를 보호하고 불모지를 녹지로 바꾸는 현장을 목격했다. 나무가 자라는 데 10-1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재생된 연못은 생물 다양성을 향상시켰다.

정부가 시행·추진·검토 중인 정책들

인도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2015년 10개 도시의 대기질지수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이를 현재 122개 도시까지 확장했다. 국가청정공기프로그램(National Clean Air Program)의 목표는 2024년까지 2017년 수준의 20-30%까지 미립자 오염을 줄이는 것이다.
2. 2017년 뉴델리 정부는 차량2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짝수로 끝나는 차량은 특정 요일에 도심 운행이 금지되었다. 다른 요일에 홀수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는 대기오염 감소에 효과적이었지만 경제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3. 인도는 엄격한 BS6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1000대의 전기구동 버스를 도입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까지 인도의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개인소유 차량의 25%가 전기자동차(EV)가 될 전망이다.
4. 농민에게는 유기 폐기물을 비료로 전환하는 기계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도입하는 경우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수확 종료 시 짚을 태우는 작업이 불필요하게 된다.
5. 구자라트에서 델리까지 길이 1600km, 너비 5m의 '녹색 복도'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공기를 자연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13억 5천만 그루의 토종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6. 델리 전역에는 습식 및 건식 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고 비닐봉지의 사용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발제자



닐리마 매서

Spotfilms
책임 프로듀서
인도

◎ 이력

- 미디어 연구원, 작가 겸 책임 제작자로서 40년간 근무
- 환경 다큐멘터리 트레이너 및 연출가
- 유네스코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기반한 최초 MIL 트레이너

기후변화를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홍수, 가뭄, 사이클론, 빙하의 해빙은 수십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사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의 한 측면일 뿐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다.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량은 80만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치이며, 가장 큰 주범은 에너지 소비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신문 1면엔 우울한 기사가 연일 계속 실리고 있다. 한때는 7개 마을에 700개 가구가 살고 주말 피크닉 장소이기도 했던 인도 동해안 17km 지역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가구에는 몇 명 살지 않고, 40살 주민은 버팔로 20마리를 돌보기 위해 마을을 지키고 있다.

기력이 쇠한 노인은 아내와 자신이 먹을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한다. 이 노인은 종종 악어가 어슬렁거리는 시냇가를 5km 가량 이동하며 잡은 물고기를 팔고, 무료급식으로 연명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초래한 슬픈 현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6년 사이 해당 주(state)의 550km 길이의 해안지대 28%가 바다에 잠식되었다.

닐리마 매서

WHO는 코로나19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위협으로 선언 하였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 서있는 걸까? 코로나19와 기후변화를 다룬 언론보도를 살펴보기 바란다.

다음은 언론의 현주소이다.

‘UN 2020 & Beyond’ 자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하나는 오늘날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0%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정부, 기업, 민간사회, 청년, 학계가 모두 협력한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무엇이 빠져 있나? 바로 언론이 빠져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일반적으로 서양 국가에 대해서는 언론의 관심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책임이나 지속적인 대화를 언급하지 않는다. 언론은 현실정치와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언론이 UN이 언급한 70%의 기술혁신을 대중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적 요소가 결여된 환경의 상업화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보도는 과학에 근거하여 대중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언론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언어가 아니다.

대중매체와 과학 그리고 정책이 만나는 지점은 이해당사자가 연결돼 있는 역동적 영역이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구의 인쇄매체에 등장하는 기후관련 보도는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ABC, CBS, NBC, FOX와 같은 TV채널이 1년 동안 기후변화를 다룬 시간이 포함 142분이었던 것이다.

2015년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 검색량이 많은 나라는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큰 국가들이다. 인터넷 언론에서 TV나 인쇄매체보다 좀 더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사실 검증이 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93년과 1994년 인도에서는 흥미로운 기후관련 TV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최고의 연구기관, 업계전문가, TV방송, 영상제작사가 투입되었다. 각 3-4분짜리 52부작

■ 날리마 매서

시리즈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황금시간대에 매주 전국 방영되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여러 현지기술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다.

기후변화가 우리 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코로나19처럼 우리 혹은 우리 후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발제자



장다울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한국

◎ 이력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 제20대 국회의원실 정책비서관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글로벌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유엔지역개발센터 환경연구원

[기후위기 시대의 언론의 역할]

생존을 위한 한계선, 1.5°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0'(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위한 중기 목표로서 2030년까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배출량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결론을 내렸다.

0.5% vs 45%

지난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난해 말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75개국의 감축목표를 분석한 첫번째 보고서를 발표

장다울

했다. 전체 국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해당 75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대비 1%도 안 되는 0.5% 감축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이 요구하는 목표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는 한국이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의 복잡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후변화는 그저 환경문제 중 하나가 아니다. 더운 날이 증가하는 정도의 문제도 아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보고서 내의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 시민 입장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숫자와 복잡한 도덕적 과정은 마음에 잘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이 시민들의 일상의 경험과 삶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독자의 성향과 가치관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내야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기후변화 문제는 진보 보수 구분 없이 더 많은 시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이해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언론은 기후위기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공중보건, 국가 안보, 식량안보,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시급성에 집중하며 희망을 이야기해야

이른 시일 내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7년도 되지 않아 우리가 가진 탄소 예산이 전부 바닥나 버릴 것이라는 과학적인 결론은 우리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론이 기후위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 시급성과 심각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동시에 시급성과 심각성에 대한 강조가 무기력과 패배주의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 지구적인 기후행동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세계적 에너지 전환은 이미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종말은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화석연료 산업투자 철회운동 역시 확산되고 있다. 언론은 이미 현재 우리가 가진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알리는데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장다울

문제 악화가 아니라 해결에 역할을 해야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우리의 사회경제시스템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해가 되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이전도 이미 우리는 복합 위기 상황을 겪고 있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코로나19 회복 대책은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시된 장기 목표는 향후 10년간의 대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언론이 문제 악화가 아니라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발제자



윤지로

세계일보
환경부 기자
한국

◎ 이력

- 세계일보 근무
- '2020년 한국 녹색 기후 상'(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회의포럼), '2019 기후변화 기자상'(한국 기후변화 연구협회), '2017 EU 기후변화 기자상'(유럽연합)상 수상
- 2014년 한국 기상청, 2017년 환경부 훈장 수훈

[악당국가의 고백]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네 나라를 하나로 묶는 용어가 있습니다. 2016년 영국 기후행동추적 이라는 단체는 이 네 나라를 '기후악당'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이후 외신은 물론 국내에서도 자조적인 의미를 담아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불렀습니다.

한국은 2009년 당시 배출감소 의무국이 아니었음에도 2020년에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면 지난해 한국의 배출량은 5억4000만여t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에 7억3000만t을 기록했고, 그 후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2억t을 줄일 묘안은 없어 보입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죠.

윤지로

2015년엔 2009년 목표보다 후퇴한 2030년 감축 목표를 내놔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정부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2019년 여름 '한국은 왜 이토록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는지'를 다루는 짧은 기획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환경운동가들에게서 들은 인상적인 한 마디는 "기후변화 운동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더 이슈다 보니까..."였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데는 90% 넘는 이들이 공감했지만, 단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기후변화는 경제성장, 실업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했을 뿐입니다. 중기 우선순위에는 3위를, 장기 우선순위가 돼서야 2위로 올라왔습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PCC의 '1.5도 보고서'가 발표된 곳은 다음아닌 인천 송도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또 그 보고서가 한국에서 발표됐음에도 2018년 10월 당시 언론의 보도량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5월, 11월 터닝포인트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지난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 개의 상징적인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5월 대통령의 '그린뉴딜' 발표와 11월 '넷제로 선언'이 그것이죠.

원래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12일 뒤늦게 그린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죠.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린뉴딜을 언급하고 두 달 뒤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실는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없었고, 정의로운 전환 같은 개념도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단지 집대성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넷제로 목표가 빠져 정책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윤지로

사실 한국은 '제로 선언'에 인색한 나라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탈 내연기관차, 온실 가스 제로 등 각종 제로 선언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서 한국은 한 발 물러나있죠.

그런데 지난해 11월 마침내 대통령이 2050 넷제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넷제로 선언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에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전에 어떤 시그널도 없이 넷제로 선언이 나온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가 기후변화를 대하는 자세는 11월 넷제로 선언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로소 기후변화 대응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제로 선언 이후 기업들은 앞다퉀 ESG 경영을 선포하고 기후금융 선언에 동참하는 금융사도 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환경이라는 주제는 규제와 비용이라는 틀 안에서 다뤄졌는데, 이제는 반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만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진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변화를 느낍니다. 평소 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지인이 최근 대화에서 한 풍력발전 설비회사의 이름을 언급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 분은 주식투자 정보가 필요했던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린뉴딜의 플레이어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넘치는 구호... 디테일 속 악마를 잡아라

이제 탈탄소 구호는 넘쳐납니다. 일종의 유행어가 된 이런 외침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워싱에 속지 않으려면 말이죠.

아직 한국 언론은 정부와 기업의 구호를 전달하는 데 바쁜 것 같습니다. 검증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탄소 배출 저감을 약속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 어느 범위까지의 탄소를 말하는 것인지,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런 걸 검증하려면 어떤 툴을 이용해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그나마 감시의 눈길이 있습니다만 농림어업, 교육, 복지, 고용 정책과 그린뉴딜의 정합성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때 나온 공약에서도 기후는 분명 예전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기대 이하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윤지로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꾸준히 짚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한국 언론의 폐쇄적인 출입처 시스템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부 기자가 정치나 기업 이슈를 다루는 것, 환경부 출입기자가 산업부 정책을 다루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설령 그렇지 않은 언론사라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전문지가 아닌 종합 일간지로서 어떻게 쉽게 일반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것입니다. 전문성과 가독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계속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양적으로 폭증한 기후변화 뉴스를 질적으로도 한 단계 올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 자리의 논의를 통해 그 열쇠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제자



쿠바니치벡 타발디예프

Kabar News Agency
총편집국장
키르기스스탄

◎ 이력

- 러시아 국립 노보시비르스크대 학사
- 모스크국립대 석사
- 키르기즈 국영뉴스통신사 <카바르> 총괄책임자

[기후변화와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도 기후변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랄해 같은 큰 호수가 건조화되면서 역대 기후의 균형에 영향을 미쳤던 비극적 사례가 있다. 호수는 2세대에 걸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저수지의 1/4도 남지 않았다. 건조화되기 전에는 기존 인프라로 양식업과 해운업이 가능했다.

1. 생태 재앙의 결과로 인해 이 지역의 기후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메마른 호수 바닥에서 먼지 폭풍이 발생하면 키르키스 거의 전 지역으로 확산된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과 같이 빙하가 많은 국가는 빙하에 떨어진 아랄해의 먼지가 빙하 용융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특히 영향을 받는다.
2. 이들 국가의 산맥은 이 지역 빙하의 거의 90%를 이루며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양국의 저수지는 여름에 녹은 빙하로 축적되며 모든 지역의 저수지도 마찬가지다. 양국의 빙하는 식수와 관개 용수의 주요 공급원이다. 아무다리야(Amu Darya) 강의 물 흐름은

쿠바니치벡 타발디예프

타지키스탄의 산맥에서 시작되어 키르기스스탄의 산맥에 형성된 나린(Naryn) 강까지 인접 4개국의 영토를 통과하여 시르다리아(Syr Darya) 강을 이루게 된다. 약 40년 전에는 이런 강들이 아랄호수로 유입되었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빙하가 녹으면서 양국의 전체 빙하 면적이 30% 감소했다. 이로 인해 산맥으로부터 양국의 주요 강인 아무다리야 강과 시르다리아 강으로 물 유입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 두 개의 강을 활용한 전력생산은 국가 소요전력의 70%를 차지한다. 수력발전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저수지 물을 축적하고 겨울철에 전력 발전에 사용한다.

양국 당국은 여름철 물 유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15-20년 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전기 수출국이었으나 현재 겨울철 물부족으로 양국 모두 인접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해야만 한다. 이는 역대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 중 하나에 불과하다.

두번째 문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식수 부족이다. 대규모 수력발전으로 인해 전체 지역 인구의 약 1/3이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상태다. 국제기구의 재정 지원에 따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인구의 약 1/3이 지하수 시추를 통해 식수를 얻고 있다.

한편 글로벌 규모의 기후변화는 중앙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중앙아시아 기온은 1°C가 증가한다. 이와 같은 온난화는 빙하의 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역대 모든 수역에서 상당한 증발이 발생할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대기 온도가 1°C 증가하면 지표의 물 증발량이 16% 증가한다. 이 경우 평균 강수 보존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강은 물 함량이 감소하게 된다.

4. 중앙아시아에서 유명한 이식쿨(Issyk-Kul) 호수는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 하나다. 이 호수는 최대 5000미터 높이의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맥의 봉우리는 가장 더운 여름에도 항상 얼음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이 호수 주변 산맥에서 빙하를 발견하지 못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식쿨 분지의 경우 온도가 1° 증가하면 남부 산맥의 빙하 지대가 19% 감소하고 북부 능선은 5% 감소한다고 말한다.
5. 온도가 2° 증가하면 산맥 남쪽 경사면의 빙하 규모가 76% 감소하고, 북쪽 경사면은 32% 감소한다.

■ 쿠바니치벡 타발디예프

6.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은 계곡의 과열로 인해 물 흐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수 남쪽에서 많은 양의 물이 고갈되어 빙하가 감소하거나 반대로 호수 북쪽 강 수위가 낮아지고 물 용량이 빠르게 감소할 것을 우려한다. 이런 상황은 자연 재해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해 이류(移流), 산사태, 눈사태 등이 증가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만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대가 5000개 이상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접한 양국의 산악 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양국은 대규모 산사태를 겪었고 결과적으로 많은이가 죽고, 일부 정착촌이 잔해 아래로 사라졌다.

7. 현재 중앙아시아는 지진 위험뿐만 아니라 역대 3대 도시 산맥의 이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침블락(Chimbulak) 산맥의 이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가 위험받고 있다. 알라 아르차(Ala-Archa) 협곡에서 비롯된 이류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Bishkek)로 여러 번 흘러 내려왔고 타지키스탄 두산베(Dushanbe) 시는 수십 년째 사레즈(Sarez) 호수의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8.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이류 위험지대에 거주하는 사람이 1천만명 이상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평야까지 이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9. 국제기구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시행 조치는 뒤쳐지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전체 인구가 8천만명 이상이며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례가 있는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가능성을 국제 사회와 국제기구에 고지해야 한다.

발제자



게나 할릭

Laha Magazine
리포터
레바논

◎ 이력

- <아시아엔> 기자
- <El Qabbas> 기자
- <FUTURE TV> 프로그램 제작자 역임
- 아동문학 작가
- 레바논기자연합 회원

[언론과 세계 기후: 기회와 도전]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언론과 언론인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많은 독자와 시청자가 이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매체조차도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자체 저널리즘 지침에 따라 다루곤 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기후변화,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와 보건, 경제 및 사회 문제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기후변화는 주목받게 되었다. 기후변화는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공적이며 공익적 사안이다.

이제 언론은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위험을 인식하며 독자와 시청자에게 알리고 향후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하게 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들은 기자 자질 및 역량 강화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 워크숍과 교육 세션 등을 개최했다.

게나 할릭

언론인들은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팩트를 알아야 한다. 기후변화 보도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기존 언론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젊은층 관심을 이끌어내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국가의 경우, 급박한 경제 상황으로 기후변화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화석연료 에너지 수요 감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해서 녹색 세계에 동참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생존에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로 인한 부담으로 기후변화에 집중하는 언론과 언론인을 꺼려하기도 한다.

필자의 조국 레바논의 경우,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언론과 언론인이 기후변화를 다룰 필요성을 알면서도 집중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시청자와 독자는 지금 당장 걱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기후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시청하거나 읽을 여유가 없다.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모든 국가와 언론이 기후변화에 더 관심 갖는 날이 올 것이 틀림없다. 그 때, 우리 인류는 지구촌을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나설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발제자



아룬 란지트

Foreign Affairs News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네팔

◎ 이력

- 포린어페어즈뉴스 편집국장 겸 대표이사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주요 이슈다.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상 패턴을 변화시키고 해수면을 크게 상승시킨다. 기후변화는 태양, 지구, 바다, 바람, 비, 눈, 숲, 사막, 그리고 인류의 모든 활동 시스템과 연결된 글로벌 과제다. 따라서 해결방안과 방식도 글로벌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

히말라야 지역

네팔과 전체 히말라야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히말라야 빙하를 포함한 산악 경관은 이미 기후변화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측정한 결과 저고도 지역보다 고고도 지역에서 온난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여타 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네팔의 문순 강우량은 지역 기후현상과 큰 상관관계가 있지만, 전체 강우량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감소 또는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생태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눈 덮인 고산지대는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 증가는 또한 종(種)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 구조를 변화시켜 생태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룬 란지트

의심의 여지없이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힌두쿠시-히말라야 지역의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를 배출하도록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마련했다. 지역 및 인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후변화는 과학,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측면을 포함하는 횡단면적 주제이므로 미디어와 언론인들이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에는 경계가 없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미디어와 기사에 대해 관심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정부가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 못지 않게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언론의 몫이다.

안타까운 것은 기후 관련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환경보도가 저널리즘의 죽음을 막는 비트라고 알려져 있다. 각국 언론이 기후문제에 대해 점점 주목하고 있는 점은 꼭 다행스런 일이다.

발제자



나시르 아이자즈

Sindh Courier
편집장
파키스탄

◎ 이력

-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에서 리포터, 뉴스 에디터, 매거진 에디터, 센터장, TV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 45년간 다양한 활동
- 지역 언론인에 저널리즘 특강 진행

[기후변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 세계 언론인 연대의 필요성]

“우물이 마르면 그 때서야 물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걱정스러운 상황에도 적용된다. 세계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후에야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러한 상황은 하룻밤 만에 생긴 일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 발생된 현상이다. 심각한 현상을 목도한 이후에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 국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액션을 취함에 있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언론이 기후변화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루어 왔으며, 무엇이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후변화 기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 보도되며, 관련 기사에 누구를 적절한 출처로 인용하는가?’, ‘여론 형성에 언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

나시르 아이자즈

또한 최근에 가난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외 원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원조를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하는데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많지 않은데, 이는 시청률이나 청취율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정치가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아마 전체 보도 시간의 0.1%도 안 되는 시간을 환경문제에 할애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언론사 소유주와 언론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또한 언론인들은 환경문제 보도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매우 소수의 언론인만이 환경문제를 보도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언론사는 급여비용을 특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로 언론인을 고용하기를 꺼리므로 대부분의 경우 언론인은 여러 분야를 다뤄야 한다. 이러한 언론사 정책이 언론인의 전반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낮은 교육수준이다. 이 문제는 주로 지방 소도시의 '지역 리포터'로 불리는 언론인에게서 나타난다. 이들은 저널리즘 학위 없이 여러 부문에서 차출된다. 이들은 점주, 공무원, 혹은 신문가판대 직원일 수도 있다. 이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언론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불행히도 이들 '언론인'의 대부분은 지역 정치인들을 위해 일을 하거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관공서를 드나들기도 한다. 최소한 파키스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만연해 있다.

기후변화의 중대성을 이해하는 언론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인은 환경관련 교육을 받고 기후과학과 기후문제 관련 윤리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은 기후변화 정책형성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을 계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후변화 위협에 함께 맞설 수 있도록 세계 언론인들이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언론인이 기후관련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연대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의 언론이 기후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외친다. "기후변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세계 언론인은 연대해야 한다."

발제자



레오니디오 페레이라

Diário de Notícias

부편집장

포르투갈

◎ 이력

- Diário de Notícias 부편집장

포르투갈은 바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바다는 포르투갈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현재와 미래이기도 하다. 포르투갈은 이베리아반도 작은 서유럽국가이지만, 15세기경 포르투갈이 최초로 발견한 섬인 아조레스와 마데이라 등 대서양에 속한 두 개의 군도지역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포르투갈은 바다 그리고 바다에 닦친 위협에 대한 소식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규모 정보교류 활동이 온라인 행사로 전환되는 현재 상황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에는 싱크탱크인 '클럽 데 리스보아'(Clube de Lisboa)가 전 세계 전문가와 함께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언론사 파트너 중 하나인 우리 신문사는 '모두의 바다'(The ocean that belongs to all)라는 명칭으로 개최된 컨퍼런스의 중요성을 포르투갈 독자들에게 널리 전파했다. 본래 일정대로였다면 행사는 유럽 해사안전청 본부국인 포르투갈의 리스본 타구스강 옆 웅장한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해당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필자는 컨퍼런스 주제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디지털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포르투갈 및 해외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1864년 창간된 우리 신문은 행사 일주일 전에 필자가 작성한 기사를 인쇄판과 디지털판으로 보도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 플라스틱의 해안 투기 실태를 독자들에게

레오니디오 페레이라

전하기 위해 ‘물고기보다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에 떠다니지 않도록 하려는 논의가 리스본에서 진행 중’이란 타이틀을 달았다. 이 문제와 관련 포르투갈 전직 총리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전에 언급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염장 대구 요리를 즐기는 일본과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국민 1인당 생선 섭취량이 많은 포르투갈에선 매우 중요한 이슈다. 컨퍼런스 전날 우리 신문 <디아리오 데 노티시아스>는 바다가 위험에 처한 실태를 포르투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재차 보도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유엔 대사를 지내고 유엔총회의장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사절단으로 임명된 피지의 외교관 피터 톰슨 인터뷰가 소개됐다. 당시 우리 신문은 기사제목 선정 때 플라스틱이 우리네 삶의 방식에 미치는 위험과 포르투갈 가정이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해변에 닥칠 위험성을 포르투갈 독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바로 지금 우리의 습관과 행태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40년에는 전 세계 해안선 1미터마다 50kg의 플라스틱이 생길 것이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피터 톰슨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어 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자. “먼저 외국에선 포르투갈을 작은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포르투갈이 해양 부문에서 맡은 역할과 과거 신항로 개척시대에 전 세계에 미친 영향(현재에도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다)을 봤을 때 포르투갈을 작은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 인구수를 봤을 때 포르투갈 국민은 대단하며 잘 대처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다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같이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여럿 있다. 이처럼 바다를 존중하고 보호와 개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모습이 바로 지속가능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피터 톰슨의 인터뷰 덕에 포르투갈 인구가 1천만명에 불과하다는 말은 더 나올 수 없게 됐고, 외려 포르투갈 국민들 마음을 한데 묶을 수 있었다.

우리 신문은 ‘모두의 바다’ 컨퍼런스 소개 기사와 피터 톰슨 인터뷰 기사를 독자에게 타지보다 먼저 몇 시간 앞서 독점 공개한 후 공익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완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레오니디오 페레이라

그뿐 아니라 두 기사 모두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수시간 동안 배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2회 이상 ‘알림’ 표시가 됐다. Facebook에는 동일한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포스팅했다.

두 기사의 조회 수는 환경, 해양보호,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기사의 평균조회 수를 크게 웃돌았다. 포르투갈어로 구글 검색창에 ‘모두의 바다’라는 컨퍼런스 명칭을 입력하면 다른 기사보다도 <디아리오 데 노티시아스>의 기사 2건이 제일 먼저 표시된다. 또 우리 신문이 진행한 피터 톰슨 인터뷰 기사도 독자 수가 더 많은 다른 신문사 인터뷰 기사보다 먼저 소개된다.

이러한 경험과 조회 수를 분석한 후 <디아리오 데 노티시아스>는 기후변화 보도가 대중의 지식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신문사 위상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다른 신문사의 독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발제자



티무르 샤피르

러시아기자연맹
사무국장 겸 국제부 부장
러시아

◎ 이력

- 국제기자연맹(IFJ) 부회장
- <저널리즘과 미디어 시장> 편집위원

[언론인과 과학자의 유사점과 상이점]

지구온난화를 다루는 언론인은 일상 업무 접근 방식에서 과학자와 유사점이 많다. 과학자와 언론인 모두 진실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자료와 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한다. 또 동료보다 먼저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그러나 과학자는 통계에 기반한 사실을 다루는 반면 언론인은 여러 단일 사례를 다룬다. 과학자는 연구에 착수하면서 증거를 제공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다. 반면 언론인은 기사의 헤드라인에 전체 스토리를 담으려고 한다. 언론인들은 새롭고 놀랄 만한 뉴스를 특종으로 보도하려고 한다.

언론인에게 뉴스 자체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민에도 속하지 않으며 TV 방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뉴스는 순간을 다루지만 환경 변화는 대체로 느리게 진행되며 점진적이다.

언론인은 주목받을 수 있는 프레임이나 헤드라인으로 농축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헤드라인 뉴스는 문제의 본질을 반영하지만 그 목적은 다른 뉴스와 동일하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사를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티무르 샤피르

기후변화라고 해서 모두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와 통계를 전달할 필요는 없다. 정치인들이 수백,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읽을 리가 없다. 기후변화 문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의 영역이며,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다. 과학자와 언론인 모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관해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런 노력은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거나,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다거나, 가설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세상을 흑백논리로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뉘앙스는 현재 발생한 상황과 발생 원인에 대해 기후학자의 이론을 폄하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며, 수사학적인 무력화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 관련 자료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모두 멀게, 본인들 삶과 관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다루는 언론인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살펴본다면 여러 감추어진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은 환경 현상의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세부 사항, 환경 관련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또 정책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와 환경 단체의 활동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이해해야 전체 맥락을 파악, 전달할 수 있다.

언론인은 아무리 정보가 복잡해도 스스로 이해하여 최대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저널리즘은 전달 방식에서 다른 분야와 같지 않다. 미묘한 점은 자료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전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공연히 독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온전히 정보만 전달하는 접근방식도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 독자들의 공감과 연대의식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처럼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 정보를 확인, 재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불확실한 정보는 대중의 불신을 살 뿐이다.

발제자



아이반 림

싱가포르 환경기자클럽 회장
싱가포르

◎ 이력

- 스트레이타임스 기자 역임
- 아세안기자연합, 아시아기자협회 2대 회장 역임

[기후변화, 기자 역할에 긴급성을 불러오다]

(1) 기후변화에 대한 기자의 역할은 조금의 과장도 없이 급격히 높아야 한다. 빙하의 해빙에서 해수면 상승, 거대 허리케인, 열대성 태풍, 산불과 가뭄에 이르기까지 지구온난화로 야기되는 자연재앙과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유엔 회원국 간의 흥미진진한 고위급 정치도 있어선 안된다.

얼마 전 <가디언>은 언론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다. “언론은 사회 신경계의 구성요소로, 신경 전달물질이 손가락 끝이 데이고 있다고 뇌에 전달하는 것과 같이 먼 미래의 위험을 대중에게 경고한다. 기자들은 소수 목소리와 먼 곳에 있는 목소리가 많은 청중과 의사결정의 중심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증폭기 역할을 한다.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감시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가디언>은 “우리 언론의 역할인 전달, 증폭, 그리고 조사는 환경파괴에 대한 어떠한 효과적인 대응에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이반 림

기후변화는 사실 ‘문명의 위기’로 변모했고, 기자들은 대중과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식량 부족, 실패한 정부, 대량살상 무기,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실패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질 것이다.”

유엔과 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개선책을 내기 위해 단결행동을 취해 왔다. 1994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시키고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97년 교토의정서는 G7 그룹이 선두범하며 개도국에게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한 모범을 보이라고 권고했다.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는 기온 상승을 2°C 또는 3.6°F 이하로 줄이기로 동의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1.5°C 또는 2.7°F 이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는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C ‘훨씬 아래’로, 가능하다면 1.5°C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했다. 그러려면 에너지와 운송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그만두고, 산림 손실을 중단하며, 대기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 목표에 이르도록 했다.

가장 최근 움직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2일과 23일에 개최할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지도자 정상회담이다. 백악관 성명은 “이번 회담이 더 강력한 기후 조치에 대한 시급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 이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2)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5ppm(백만분율)을 기록해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과 비교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1.5°C에서 4.5°C의 온도상승이 탄소 수치를 재난의 시발점인 550ppm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이반 림

따라서 다가오는 4월 정상회담은 녹색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 기술을 발전시키며,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서 내려지는 결정은 11월로 정해진 유엔 COP26 총회를 앞두고 면밀히 주시될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뜨거운 정치적 감자가 될 것이라며, 석탄산업과 기타 화석연료 집약 산업의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논쟁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옹호하는 자들 간의 충돌로 진화하고 있다.

녹색 캠페인 선두에는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있다. 2019년 유엔기후변화 협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내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는데, 여러분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이야기뿐입니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3)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2019년 산업의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5싱달러의 탄소세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태양에너지 생산을 4배 늘리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며, 저탄소 솔루션에 투자하고, 27억 싱달러 규모의 녹색투자 프로그램과 같은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탄소가격에 대한 발상이 다른 국가들에서 더 인기를 얻게 되자 이같은 입장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탄소가격이 폴란드와 멕시코에서는 탄소배출량 1톤당 1달러에서부터 스웨덴에서는 1톤당 137달러까지 다양하다고 보고했다.

발제자



아울 카다르 이스마일

소말리아기자연맹
저널리즘 분석 및 비평가
소말리아

◎ 이력

- 소말리아기자연맹 주무

기후변화는 환경파괴의 결과로 기인한 세계적인 비극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취약한 국가들에게 더 위협이 되고 있다. 언론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단계마다 독자들에게 전달해 나간다. 정보의 원천으로서 미디어는 기후변화와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단을 갖지 못한 대부분 사람들에게 언론은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을 정확히 전달할 뿐더러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할 수도 있다.

급속한 도시화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초원이 사라지는 것은 그 결과 중 하나다. 특히 소말리아에서의 두드러진 현상은 목초지의가 사라지고 있는 점이다. 언론은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은 무엇인가?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계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 정부 및 민간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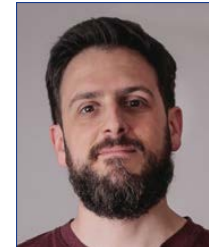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대중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또 기후변화 예방에 대중들의 참여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울 카다르 이스마일

기후변화 관련 미디어 역할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의 가교를 놓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안이다.

소말리안 언론의 경우 대중들에게 산림녹화의 중요성과 산림파괴 예방법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타당성 높은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목축업자, 농장주 그리고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제자



세바스찬 아우야넷

NowThis News

프로듀서 겸 사회부 기자

우루과이

◎ 이력

- <El Observador> <El País> 기자 역임
- Sembra Media 코디네이터 겸 자문위원
- Craig Newmark 대학원 Social Journalism 석사

[“당신은 이 문제를 기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2017년 CUNY 언론대학원(현 Craig Newmark 언론대학원)에서 ‘Resilience Journalism Fellowship’ 1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미국, 아프리카, 유럽 등지의 10명 이상의 기후담당 언론인들이 뉴욕에 모여 ‘자연의 회복력’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했다.

‘회복력’이란 엄청난 충격이 있을 후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1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거대한 홍수방지 설비와 해일방지 프로젝트와 브롱크스 소재 농장을 방문하였다. 뉴욕에서 지내는 그해 1년 동안 빈민지역 공공주택 거주자에게 에어컨이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알게 됐다. 정작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후 함께 일하게 된 과학자들은 이 문제가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크게 염려하였다.

세바스찬 아우야넷

쉽게 말하자면, 환기가 잘 안 되는 콘크리트 건물은 '열섬(heat islands)'이 될 수 있어 여름철엔 과도한 열을 품게 된다. 아이들은 천식을 달고 살고, 노인의 경우 탈수현상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다. 공공주택에 에어컨을 들이려면 허가를 받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주택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뉴욕시는 코로나19가 일부 빈민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이후에야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뉴욕에서 거주하는 동안 필자는 지역단체 및 과학자들과의 협력으로 뜨거운 여름철 주민들 스스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필자는 당시 경험을 통해 언론이 그저 '회복력 감소' 등 문제점 지적을 넘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기사로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기사 외의 방식으로 채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쓴 기사를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연세 드신 분들도 쉽게 전달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언론의 몫이 아닐까?

필자 경험은 뉴욕에서의 1년 경험을 통해 습득된 것에 불과하지만, 최근 남미 지역에선 수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아마존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자 'El Surti in Paraguay'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후문제에 깊이 있는 연구 및 활동에 들어갔다. 2002년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한 웹사이트 'Infobae'는 뉴욕, 멕시코, 브라질 등의 지사망과 500명 이상의 기자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이 매체는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벌어지는 외국선박의 불법조업을 기사는 물론 트위터와 동영상을 통해 전세계에 전하고 있다.

필자가 스페인어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Now This News>도 취재를 통해 작성한 기사에 대한 배포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효과적인 기사 전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세바스찬 아우야넷

다음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언론의 세 가지 관점이자 자세다.

1) 사회운동가로서의 언론

언론인과 그들이 생산하는 기사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 대해 투명하고, 정파성을 띠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하지만 언론인은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정부나 로비스트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실제 발생되고 있는 일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2) 더 많은 독자 확보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의 '미디어 멤버십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있다. 멤버십이란 충실한 독자와 언론사간 금전거래 외에도 좀 더 적극적인 독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계약이다. 독자와 좀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언론은 해당 지역사회에 귀를 더 기울이고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시민과의 동맹 구축

자신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이에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자신의 도시나 국가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글로벌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전 세계 언론인과 뉴스룸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언론인들이 협력한다면 해당 사안을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독자와의 쌍방향 교류를 더해가며 다양한 형태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제자



티란추

Dantri Online Newspaper
기자
베트남

◎ 이력

-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 졸업
- 단트리 온라인 뉴스 데스크
- Dtinews.vn 부편집자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에 대처하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베트남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폭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유례없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부 지역에서 최소 550만명이 재해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 언론은 최근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주요 세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배전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언론인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삼림 파괴와 수력 발전 사업이 건기의 가뭄과 우기의 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베트남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주로 중부와 중부 고원의 삼림에서 매년 2430헥타르가 사라지고 있다. 또한 여름철 기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우기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더욱 빈발한다.

티란추

한편 지방 당국이 문제 해결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기자들이 다수의 삼림 파괴 사례를 보도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 당국과 삼림 감시원이 벌목 업체와 협력하여 벌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목꾼들은 통상적으로 벌목을 금지하는 대상에 맞설 수 있는 대규모 그룹을 형성한다. 따라서 언론인들은 이들에 맞서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다른 세력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다른 매체의 동료들과 협력하거나 경찰 또는 환경보호단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 기자들은 최근 팬네이처(PanNature)의 Voices for Mekong Forests(V4MF) 프로젝트로부터 지원받아 지방 당국의 삼림 관리 정책 조사에 필요한 언론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팬네이처는 5개년 프로젝트(2018-22년)의 처음 2년 동안 20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삼림 관리에 관한 4건의 조사를 기획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약 40건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삼림 관리와 보호를 담당하는 지방당국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후변화 피해자에 대한 언론인은 공감과 이해 역시 중요하다. 지난 10월 중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동안 일부 베트남 언론인들은 홍수와 산사태 현장으로 달려가는 노력과 용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베트남 매체의 베테랑 기자 한 명은 광남(Quang Nam) 지방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휩쓸린 2살 난 아기의 시신을 지방 구조대가 회수하는 것을 녹화하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베트남 방송의 한 MC는 홍수 피해자들의 엄청난 손실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생방송 중에 눈물을 흘렸다. 당시 이 언론인들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게 된 점을 사과했지만, 시청자들은 홍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진실된 정보와 언론인의 진정한 사랑 모두를 성공적으로 전달한 사실을 입증했다.

언론인은 꾸준히 배워야 한다

언론인은 지식 향상을 위한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기후변화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불법 삼림 벌목꾼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 방법을 바꿔가며 벌목을 시도한다. 언론인들은 좋은 기사를 쓰려면 새로운 규제와 현실을 따라잡아야 한다.

티란추

베트남의 일부 환경단체는 지역 언론인의 환경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특정 기후변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출장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기회는 모두 기자들이 지식과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지방당국의 언론 부서에서도 언론인을 대상으로 여러 유용한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언론인들은 활동, 공감, 이해를 통해 기후변화 대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Participants List

참가자 리스트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WJC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2021 세계기자대회



2021 세계기자대회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1	Germany	Tobias Kaiser	Die Welt	EU Correspondent
2	Colombia	Angel Fernando Galindo Ortega	The pharmaletter and debatesdecineblogspot.com	Freelance journalist
3	Romania	Tinca-Octavia Galescu	ROROR Romanian Broadcasting Company	Musical Editor/ Producer
4	Papua New Guinea	Gorethy Maria Kenneth	Post Courier	Senior Political Journalist
5	Nigeria	Abubakar Adam Ibrahim	Daily Trust Newspaper	Features Editor
6	India	Ambica Gulati	Independent Journalist	Independent Journalist
7	Costa Rica	Mora Dennis	Horizontes Television And Radio Costa Rica, National and International Frequency Por Central America and Caribbean Countries	Director
8	Nepal	Arun Ranjit	Foreign Affairs News	CEO/ Chief Editor
9	Russia	Timur Shafir	Russian Union of Journalists	Executive Secretary / International Director
10	Georgia	Avtandil Otinashvili	News Day Georgia LTD	Chief Editor
11	Palestine	Abdelrahman Khraishi	Palestinian Journalist Syndicate (PJS)	International Relations Coordinator
12	Bangladesh	Mahbub Morshed	The Daily Star	Joint News Editor
13	Indonesia	Mohammad Nasir	Indonesian Journalists Association (PWI)	Director of Public Services
14	Somalia	Awl Khadar Ismail	National Union of Somali Journalists	Information Secretary and Human Rights Officer
15	Cambodia	Pann Rethea	The Post Media.Co.ltd	Sub-editor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16	China	Jing Zhu	All China Journalists Association	Staff Member
17	Dominican Republic	Luis Beiro	Listin Diario	Editor
18	India	Ranjit Kumar	Independent Journalist	Strategic Affairs Analyst
19	Portugal	Leonidio Ferreira	Diario de Noticias	Deputy Editor-in-Chief
20	Philippines	Rosalin Garganera	On Target Media Concept and Public Service & Asian Journalist Association	Columnist/Broadcaster
21	Italy	Antonio Moscatello	Askaneews	Journalist
22	Tanzania	Peter Nyanje	Jamhuri Media Limited	Editor
23	Kuwait	Reaven D'Souza	The Times Kuwait	Managing Editor
24	Kyrgyzstan	Nurzhan Kasmalieva	Kabar News Agency	Chief of translations department - editor
25	Afghanistan	Fathulbari Akhgar	The Kabul Times	Deputy Editor-in-Chief
26	UAE	Rasha Abdelrahman	Ajman University	Head of psychology department
27	Nepal	Kuber Chalise	Karobar National Economic Daily	Editor
28	Egypt	Ashraf Eldaly	The Silk Road Literature Series	Editor-in-Chief
29	Pakistan	Nasir Aijaz	Sindh Courier	Chief Editor
30	Ghana	Malik Sullemana	Ghanaian Times	Senior Journalist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31	Denmark	Flemming Ytzen	Politiken	Columnist
32	Pakistan	Rahul Aijaz	Freelance	Journalist/Writer/Filmmaker
33	Cambodia	Chanritheara Torn	Thmey Thmey Media	Journalist
34	Uruguay	Sebastián Auyanet	NowThis News	Publisher / Strategic Consultant
35	Bangladesh	Md Tawfique Ali	The Daily Star	Former Journalist
36	Laos	Saylakham Khayongek	Lao Economic Daily Newspaper	Editor in Cheif
37	Nepal	Niraj Ranjekar	aarthiksanjal	Chief Editor
38	Cambodia	Phearun Roeurn	The 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Officer
39	Mexico	Rafael Robledo	Nest Taller de Communication	Deputy Director
40	Malaysia	Norila Mohd. Daud	Malaysia World News	Senior Editor
41	Paraguay	Benjamin Fernandez Bogado	Radio Libre	Director
42	Ireland	Frank McNally	The Irish Times	Columnist
43	United Kingdom	Jim Boumelh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Former President
44	United States of America	Lynn Walsh	Trusting news/ Freelance Journalist/ Point loma Nazarene University	Assistant Director/ Professor
45	Lebanon	Ghena Halik	Laha Magazine	Reporter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46	Singapore	Ivan Lim	Environment Communication of Singapore	Chairman
47	Kyrgyzstan	kubanychbek Taabaldiev	Kabar News Agency	Director General
48	Vietnam	Thi Lan Cu	Dantri Online Newspaper	Editor
49	Germany	Hassan Humeida	GEOMAR/University of Kiel University of Flensburg	Doctor
50	Georgia	Khatuna Chapichadze	Georgian Technical University	Professor
51	Bangladesh	Ahmed Jamil	Asian Television	Advisor-News&Content Affairs
52	China	Zhihao Zhang	China Daily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er
53	Thailand	Kiratikorn Blauw	Thai PBS World	Editor-in-Chief
54	India	Neelima Mathur	Spotfilms	Executive Producer
55	Honduras	Rosa Pineda	Diario La Tribuna	Journalist
56	Mongolia	Gantuya Ganburged	Nomadic Content LLC	CEO
57	Israel	Avi Pitchon	Haaretz	Editor, Writer
58	Mongolia	Bolortulga Erdenebileg	Confederation of Mongolian Journalists	Secretary General
59	Bahrain	Habib Toumi	Bahrain News Agency	Media Advisor
60	Malaysia	Mohamad Nasir Yusoff	Formerly with Bernama, Malaysia's national News Agency Now with Malaysia-Indonesia Journalist Friendship Association	Formerly Managing Editor Now Secretary General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61	Cambodia	Rinith Taing	Khmer Times	Chief Reporter
62	Cyprus	Petros Soutzis	www.autokinito.com.cy	Editor in Chief
63	Russia	Sang-hyun Lee	Sputnik News Agency	Correspondent to Seoul
64	Cambodia	Sopha Chhay	Cambodia News	Advisor and General News Writer
65	India	Sabina Inderjit	Indian Journalists Union	Secretary General
66	Colombia	Margaret Ojalvo	Al D a Noticias / SIR Radio / OjaNoticias	Director and Journalist
67	Vietnam	Nguyen Do Hoa Mi	Vietnam Journalists Association	Reporter

※ The list is based on the order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 참가자리스트는 등록 순서에 따라 기재되었습니다.



WJC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2021 세계기자대회